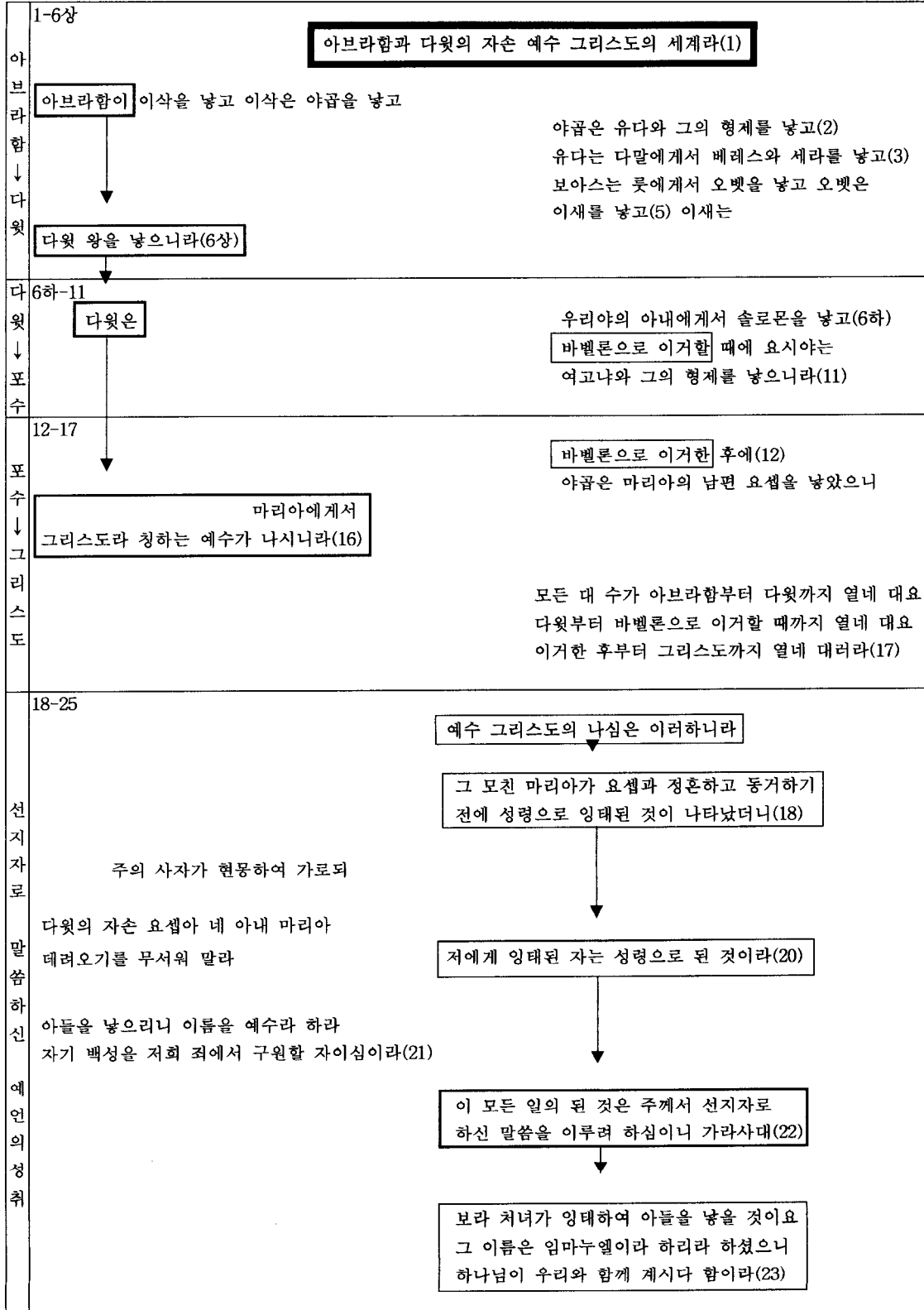


마태복음 1장 개관도표

주제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주제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은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1) 하고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주제와, 기록목적을 밝혀주는 중요한 명제(命題)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족보를 유의해보면, "아브라함(2)에서 다윗까지(6),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포로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6) 하고, 14대씩, 세 부분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속사의 산맥(山脈)에 우뚝 솟은 두 거봉(巨峰)입니다. 이 산맥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게까지 뻗어 내려온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 22:18)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하고 세워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주셨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구속사의 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만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원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장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이거"(1:11-12), 즉 포로 된 기간을 하나의 분기점(分岐點)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포로 기간에도 단절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계승시켜 나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요, 구약성경의 기록목적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히 1:1)으로 그리스도의 청사진을 그려주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된 말씀(성경)을 들어서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포로에서의 귀환,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돌아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즉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옴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

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내 신"(겔 36:24-27)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귀환을 접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심이라"(마 1:22), 즉 구약성경의 성취(成就)임을 논증하는 것이 12번(1:22, 2:5, 17, 23, 3:3, 4:14, 8:17, 12:17, 13:35, 21:4, 26:56, 27:9)이나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기점(分岐點)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16:15절입니다. 이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는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근 3년 가까이 훈련시키신 후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마 16:21)고 말씀합니다. 만일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도 전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면 그들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20:28)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주님은 그 이후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20:18-19)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라고 말씀합니다. 이점이 어찌서 중요하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많은 교훈들을 이런 맥락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해체시키는 설교

복음서에는 주님의 행적과, 교훈과, 기사이적 등이 등장합니다. 이를 단편적(斷片的)으로 다룬다면 복음서의 기록목적과 주제를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구도(構圖)에 입각해서 증거 해야만 주제가 부각이 되고 구속 주되시는 그리

스도를 증거 하는데 통일성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과 혼동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도 이 구도와 통일성을 망각한다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 편의 증언(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훈과, 축복과, 기사이적"으로 둔갑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선(線)입니다. 오늘의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점으로 접근하다보니 복음을 해체(解體)시키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 이적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사 이적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일으킨 후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행 3:15-16)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부활하는 도 전 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행 4:2-3) 합니다.

영적 출애굽

또한 마태복음은 주님의 사역을 영적 출애굽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가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2:15)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호세아 11:1절의 인용인데, 이는 구약교회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영적 모세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아기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와 결부시켜서, 주님이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돌아온 일을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비약이면서도, 놀라운 영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주님을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머리,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 출애굽 사건임을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신 데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점은 산상수훈을 배열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4:25-5:2),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는 장면을 상기하게 합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단 도하를 성취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심으로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영적 여호수아(예수)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 130:1-8).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요절 :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의 중심점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성취임을 족보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둘째는 처녀 탄생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들어서 입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심이니”(22)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7)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

둘째 단원(18-25)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첫째 단원(1-17)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

① 신약성경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점이 “예수의 세계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데서 드러납니다.

② 그러므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첫 단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둘째 단락은 다윗으로 시작하여, 셋째 단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歸結)됨으로, “아브라함(2)→ 다윗 왕(6)→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6)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③ “그러므로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17) 합니다. 마태가 이처럼 족보를 14대 씩 세 시기(時期)로 나눈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둘째는, ㉡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바벨론 포수 기간에도 중단되거나 파기됨이 없이 성취되어 왔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셋째는, ㉢ 초대교회 독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려는 배려로 여겨집니다.

④ 주님의 족보를 맨 앞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영예로운 족보이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는커녕 마태는 부끄러운 면을 감추려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부각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지 않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3) 한 것이 그렇고, ㉤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6하) 한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전상(戰傷)을 입은 백전 노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오셨음을 말해준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1)가 태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11)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의 왕위가 중단이 된 환난의 기간이 끼어 있다는 점이 뒷받

침해 준다 하겠습니까.

⑤ “예수”가 다윗의 위에 오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리라”(6상)는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룻기 마지막에 수록된 족보(룻 4:22)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아들을 뛰어넘어 이새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삿 21:25, 룻 1:1)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예선(삼상 16:1)해 놓으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다윗 왕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임기응변이란 없습니다.

⑥ 주님의 족보는 마지막에 이르러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6) 하는 대목입니다. 정상적인 족보라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리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천사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20)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누가 표현한 대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눅 3:23)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는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호적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점이 유독 다윗만을 “왕”이라 칭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는 다윗 왕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은 영원한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⑦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1:1, 20, 9:27, 12:23, 15:22, 20:30-31, 21:9, 15, 22:42, 45)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15:22)나, 여리고의 소경(20:30)이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신앙고백이었던 것입니다.

⑧ 여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태가 왕통의 족보, 다시 말하면 호적상의 족보를 수록했다면, 누가는 “혈통적”(血統的)인 족보, 즉 마리아의 족보를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혈통은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나 요셉은 “솔로몬” 계통의 자손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눅 3:31) 자손인 셈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천사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고지(告知)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수태고지(受胎告知)를 마리아(눅 1:26)에게 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원(18-25)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심이니”(22).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18), ㉡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했다”(19)고 말씀합니다.

② 만일 드러냈다면 어찌되어졌는가? ㉠ 간음한 여인의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음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데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여

기 절묘함이 있습니다. 처녀로써 잉태했음에도 이를 덮어줄 수 있는 장치(裝置), 이것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18)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기이하기만 합니다. ㉠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20) 하고 “성령으로 되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③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23, 사 8:14) 하고 예언 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23하) 하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셔야만 했는가? ㉡ 첫 창조를 이루신 후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임마누엘은 인간의 범죄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을, “그들 중에 거하려고”(출 29:46), 즉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은 중간이 막혀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 이제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28:20) 하고 임마누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계 21:3) 하고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21). 여기 복음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 “죄에서 구원” 하기 위해서는 교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심으로, 떡 다섯 덩어리로 오천 명을 먹이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0:28) 하신, 대속(代贖)의 죽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9) 합니다. 마태복음은 초두(初頭)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심이라”(22)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이 15번(1:22, 2:5, 15, 17, 23, 4:14, 8:17, 12:17, 13:35, 21:4, 42, 26:31, 54, 56, 27:9)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히 1:1-2)하신 것입니다.

③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21),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였던가? 시편 130편은 이 “기다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